

송순의 면양정 구축과 <면양정가> 창작 시기*

이상원**

<차 례>

1. 서론
2. 면양정 구축과 관련 시문 검토
3. <면양정가> 창작 시기
4.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송순의 면양정 구축 과정과 그 과정에서 산출된 시문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면양정가>의 창작 시기를 알아본 것이다.

송순은 1524년(32세)에 면양정 터를 구입하였고, 1533년(41세)에 면양정을 창축(創築)하였으며, 1552년(60세)에 면양정을 중증(重葺)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시문들을 창작하고 부탁하였는데 이것들은 창축 시기의 것과 중증 시기의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면양정을 창축한 후 송순은 한시 <면양정>과 시조 <십년을 경영하여~>를 창작하였다. 그리고 소세양을 비롯한 여러 문인들에게 부탁하여 면양정을 소재로 한 한시를 받았고 스스로 이에 차운(次韻)하는 시를 지었다. 면양정 중증 이후에는 가사 <면양정가>와 이 작품의 핵심 지향을 압축한 삼언시(三言詩) 형태의 <면양정가>를 지었다. 그리고 기대승, 김인후 등에게 부탁하여 <면양정기>와 <면양정삼십영>을 받았고 만년에는 임제에게 부탁하여 <면양정부>를 받았다. 이상의 사실에서 창축 이후와 중증 이후에 창작된 시문들이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

* 이 논문은 2014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데 이는 송순이 나름대로 구상하고 기획한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면양정 구축 과정과 이 과정에서 산출된 시문들을 자세히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면양정가>는 송순이 선산부사를 마치고 담양으로 돌아온 1555년(63세)부터 전주부윤으로 다시 출사한 1558년(66세) 사이에 창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핵심어 : 고경명, 기대승, 김인후, 면양정, <면양정가>, <면양정기>, <면양정삼십영>, <면양정부>, 박순, 소세양, 송순, 심중량, 임억령, 임제

1. 서론

이 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완성된 송순(宋純, 1493~1582)¹⁾의 면양정 구축 과정과 그 과정에서 산출된 관련 시문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 중 특히 <면양정가>의 창작 시기에 대해 재론해 보고자 한다.

송순의 면양정 구축과 <면양정가>에 대해서는 그간 송순 문학 연구에서 빠짐없이 등장했던 단골메뉴들이었다. 따라서 이미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연구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필자가 기존 연구에서 특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면양정 중첩(重葺)과 관련된 것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1524년(32세)에 면양정 터를 매입하여 1533년(41세)에 면양정을 창축(創築)하였으며 1552년(60세)에 면양정을 중첩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면양정을 중첩한 1552년에 송순은 선산부사로 있었기

1) 송순의 몰년과 관련하여 1582년과 1583년이 혼용되어 왔는데 정무룡(「<면양정가>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54집, 한민족어문학회, 2009)이 이를 지적하고 바로 잡았다. 하지만 그 뒤에 발표된 연구들에서도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사정은 송순 연구의 기초가 부실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담양부사 오겸(吳謙, 1496~1582)의 절대적 도움을 받아 면양정이 증증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사실들은 물론 연보에 기초하여 정리된 것들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 정자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는데 이런 정자의 구축을 자신이 직접 주도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맡겼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비록 그것이 창건이 아니라 지붕을 새롭게 고치는 증증이고, 오겸이 송순과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아무도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1552년 면양정 증증과 관련된 이해가 위와 같았으므로 <면양정가> 창작과 관련하여 가장 유력하게 검토해야 할 이 시기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소홀하게 다룬 측면이 많았다. 정자의 증증을 친구에게 부탁한 송순이 이때 <면양정가>를 지었다고 보기는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면양정가>의 창작 시기에 대해 여러 주장들이 난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차례에 걸친 면양정 구축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선 면양정 구축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보고자 하며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면양정가> 창작 시기에 대해서 나름의 견해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2. 면양정 구축과 관련 시문 검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순은 1524년에 면양정 터를 매입하였고, 1533년에 면양정을 창축하였으며, 1552년에 이를 증증하였다. 이런 면양정 구축 과정을 둘러싼 제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이미 충분히 소개한 바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에 대한 중복을 피하고 논의가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두어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정자의 명칭에 담긴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송순은 1533년 사간원 사간으로 있다가 김안로(金安老, 1481~1537)의 권세에 밀려 파직된 후 담양으로 돌아와 정자를 짓고 이름을 면양정(俛仰亭)이라 했다. 이 면양정이라는 이름을 붙인 배경과 관련해서는 송순의 <면양정찬(俛仰亭贊)>,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의 <면양정기(俛仰亭記)>, 그리고 연보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맹자』 「진심장구 상」에 나오는 “仰不愧於天，俯不忤於人”과의 관련성에 주목해 왔다. ‘면양(俛仰)’에서 ‘俛’이 ‘俯’와 같은 뜻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송순이 정자의 이름을 면양정이라고 취한 것에 이런 의미만 내포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면양(俛仰)’과 관련된 고사가 『맹자』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심중량(沈仲良, 1658~?)의 <면양정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순자가 말하기를 “백이는 우러러 하늘을 보아 하늘의 맑음을 얻어 그 뜻을 길렀고, 유하혜는 구부러 땅을 보아 땅의 순조로움을 얻어 그 화평함을 길렀다. 드디어 이(夷)라는 이름을 바꾸어 양수(仰叟)라고 하였고, 혜(惠)라는 자를 좇아 면옹(俛翁)이라 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지팡이에 양루(仰鑿)라 새기고 책상에는 면시(俛時)라 새겨 지팡이로 책상을 두드리며 노래하기를 ‘양수여, 면옹이여, 나의 스승이여, 나의 스승이여!’라 했다.”고 하였다. 나는 소싯적에 책머리에 이 말을 적어두고는 특별히 여겨 삼가면서 마음에서 잊지 않았는데, 지금 이 정자에서 거듭 느낀 바가 있으니 말이 없을 수가 없다.²⁾

2) “荀子曰，伯夷。仰而視天，得天之清，以養其志，柳下惠，俛而視地，得地之順，以養其和。遂易夷名曰仰叟，追惠字曰俛翁。因銘其杖曰仰鑿，其刀曰俛時，則以杖叩刀而歌曰，仰叟乎，俛翁乎，吾師乎，吾師乎。余少日，入黃卷值斯語，竦然異之，於心不忘，今於斯亭也，重有感焉，則不能無言矣。”沈仲良，〈俛仰亭記〉，『俛仰集』 권7，『한국문집총간』 26，민족문화추진회，1988. 이 글에 대해서는 일찍이 정재호(「〈면양정가〉의 국문학사상 위치」，『고시가연구』 제4집，한국고시가문학회，1997.)가 주목한 바

담양부사 심중량이 1700년에 쓴 글이다. 백이의 맑음과 유하혜의 화평함을 함께 취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이는 『맹자』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³⁾는 점에서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을 왜 맹자의 말이 아니라 굳이 순자의 말로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맹자』에서는 백이의 맑음과 유하혜의 화평함을 칭송하면서도 이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 나머지 한쪽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이들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는 것이 공자라는 것을 부각하는 차원에서 얘기되고 있다. 그 단적인 것이 백이는 청성(淸聖)이고, 유하혜는 화성(和聖)이며, 공자는 시성(時聖)이라는 말이다.⁴⁾

그런데 공자의 시성은 궁극적 지향점일 뿐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따라서 사대부들의 현실적 삶에서는 백이의 청성과 유하혜의 화성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 때문에 맹자도 이 둘의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성인은 백대의 스승이다. 백이와 유하혜가 그렇다. 따라서 백이의 풍도를 들은 사람은 탐욕스런 사람도 청렴해지고 나약한 사람도 뜻을 세우며, 유하혜의 풍도를 들은 사람은 야박한 사람도 돈후해지고 비루한 사람도 관대해진다. 백대 이전에 분발한 것을 백대 이후에 듣고 떨쳐 일어서지 않은 자가 없다. 성인이 아니고서야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어떠했겠는가?⁵⁾

이렇듯 청성 백이와 화성 유하혜는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있고, 최근에는 조태성(「면과 양, 두 개의 시선-〈면양정가〉의 감성적 독해」, 『고시가연구』 제2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2.)이 다시 주목한 바 있다.

3) 『맹자』에서 백이와 유하혜를 비교 서술한 내용은 「공손추장구 상」, 「만장장구 하」, 「고자장구 하」, 「진심장구 하」 등에 보인다.

4) 이는 『맹자』 「만장장구 하」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서 기인한 말이다. “孟子曰, 伯夷聖之淸者也, 伊尹聖之任者也, 柳下惠聖之和者也, 孔子聖之時者也.”

5) “聖人百世之師也. 伯夷柳下惠是也. 故聞伯夷之風者, 頑夫廉, 懦夫有立志, 聞柳下惠之風者, 薄夫敦, 鄙夫寬. 奮乎百世之上, 百世之下, 聞者莫不興起也. 非聖人, 而能若是乎, 而況於親炙之者乎?” 『맹자』 「진심장구 하」.

이들의 영향력은 중국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에까지 이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화성으로서의 유하혜보다 청성으로서의 백이가 훨씬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초야에 은거하는 길을 택했던 인사들과 그들의 후예인 사림파들에게는 백이의 맑음이 훨씬 더 중요시되었다. 이에 따라 유하혜의 화평함은 덜 주목받거나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흐름 내부에서도 영남사림과 기호사림 사이에 약간의 인식차가 존재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백이의 맑음에 대한 추구는 공통적이지만 유하혜의 화평함과 관련해서는 영남사림보다 기호사림이 훨씬 더 관심이 많았다. 그리하여 기호사림들은 영남사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참여에 훨씬 융통성을 갖고 있었다.⁶⁾ 심중량이 면양정이라는 이름을 접하고서 떠올린 것은 바로 이런 현실참여에 대한 송순의 생각이라 할 수 있고, 그가 맹자의 말이 아닌 순자의 말로 전한 이유도 맹자가 이상적인 데 비해 순자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아무튼 심중량의 <면양정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면양정이라는 이름 속에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수기적(修己的) 자세에 대한 표방뿐만 아니라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치군택민(致君澤民)하겠다는 치인적(治人的) 자세를 아우르고자 하는 송순의 경세적(經世的) 태도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면양정 관련 시문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하다. 『면양집』에는 <면양정>, <면양정가>, <면양정기>, <면양정부>, <면양정삼십영>, <차면양정운> 등 다양한 면양정 관련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시문은 송순 자신이 지은 것도 있고 타인이 지은 것도 있는데, 타인이 지은 것은 송순 생전에 창작된 것과 송순 사후에 창작된 것으로 나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송순 자신이 지은 것과, 타인이 지은 것 중 송순 생전에 창작

6) 이에 대해서는 신영명(「16세기 강호시조의 연구-정치적·철학적 성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90), 임형택(「16세기 광·나 지역의 사림층과 송순의 시세계-계산풍류의 발전」,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 비평사, 2002), 우웅순(「16세기 기호사림파의 형성과 그 문학적 지향」, 『한국한문학연구』 제31집, 한국한문학회, 2003) 등 참조.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면양정가>의 창작을 밝혀줄 단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타인이 지은 것 중 송순 생전에 창작된 것은 면양정을 처음 구축한 1533년부터 말년까지 두루 걸쳐 있지만 크게 보면 면양정을 처음 구축한 1533년을 중심으로 창작된 것과 면양정을 증축한 1552년을 중심으로 창작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송순과 주변 문인들이 지은 시문을 면양정을 창축한 때 지은 것과 면양정을 증축한 때 지은 것으로 대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1533년 면양정을 창축하고 지은 시로는 <면양정>이 대표적이다.

百里群山擁野平 臨溪茅屋幸初成 此身不繫蒼生望 宜與沙鷗結好盟. ⁷⁾	백리에 걸친 못 산들이 평야를 끌어안아 시냇가 모옥(茅屋)이 이제 막 지어졌네. 이 몸은 창생(蒼生)의 바람에 매이지 않아 갈매기와 함께 하겠다는 좋은 맹세 맺으리.
---	---

이 시는 “司諫罷歸後作”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고 승구에서 모옥이 지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송순이 사간원 사간으로 있다 파직된 후 담양으로 돌아와 면양정을 창축하고 나서 지은 것이 확실하다.

그 외에 면양정 창축과 관련된 것으로 <차면양정운(次俛仰亭韻)> 2종이 있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은 송순이 담양 은거를 끝내고 다시 출사한 뒤 지은 것이다. <차면양정운>¹⁸⁾은 “戊戌爲承旨時作”이라는 주석이 붙어 있어 1538년에 창작된 것을 알 수 있다.⁹⁾ <차면양정운>²¹⁰⁾는 <차면양

7) 『면양집』 권1.

8) “穿林小逕坦而幽，敞豁高亭澗水頭，夾谷蒼松遮路暗，遶溪脩竹擁簷稠，長教風月閑清界，肯使塵埃犯素秋，是處着身堪偃仰，浮名虛用一生愁。” “故山風物尚清幽，奔走吾今已白頭，映雪沙汀包野遠，點螺煙岫匝天欄，歡心幸值趨庭日，佳節兼逢落帽秋，乘月欲窮良夜興，無端啼鳥喚生愁。” 『면양집』 권1.

9) 연보에는 기해년(1539년) 봄에 승지가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중종실록』에 따르면 송순이 우부승지에 제수된 것은 무술년(1538년) 11월 14일이다. 이 외에도 연보의 기록에는 잘못된 것이 여럿 보인다.

10) “丹葉辭林下碧川，晚風吹雨過階前，遠山細入眉間沒，大野平從掌上連，眼豁何方無皓月，河明茲夕絕纖煙，蒼茫光景誰堪畫，陶謝詩中始得傳。” “林居閑日度堪難，慣向

정운>1 뒤에 두 작품이 수록된 다음에 실려 있는데 중간에 있는 두 작품이 모두 기해년(1539년)에 창작된 것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이 작품도 1539년에 창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차면양정운> 2종은 재출사하여 승지로 있을 때인 1538년~1539년에 창작된 것이지만 면양정 창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들이 차운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차운시는 원운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들의 원운시는 누가 지었을까? <차면양정운>1의 원운시는 소세양(蘇世讓, 1486~1562)이 지었다. 소세양의 문집인 『양곡선생집』에는 <면양정, 위송내상순제(俛仰亭, 爲宋內相純題)>라는 시가 실려 있다.

竹林深處草亭幽
百尺危臨斷隴頭
積水滿時平野闊
暮雲歸後亂峯稠
錦城近送千林雨
瑞石遙分一片秋
魂夢每驚清禁漏
故園猿鶴未應愁.¹¹⁾

죽림(竹林) 깊은 곳에 초정(草亭)이 그윽하여
백 척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서있네.
물이 모여 가득할 땐 평야도 광활하고
저문 구름 돌아간 뒤엔 못 봉우리 뺄뺄하다.
금성산은 가까이서 온 숲에 비를 보내주고
서석산은 멀리서 한 조각 가을을 나눠주네.
꿈속에선 매양 궁중 물시계에 놀라는데
고향의 원학(猿鶴)들은 응당 시름이 없으리라.

제목에서 내상 송순을 위해 지었다고 했는데 내상은 승지를 높여서 부르던 말이다. 따라서 소세양이 이 작품을 지은 것도 1538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재집』에는 <제송승지수초면양정, 용소이상언겸공운(題宋承旨守初俛仰亭, 用蘇二相彥謙公韻)>¹²⁾이라는 시가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소세양의 원운시가 1538년에 창작된 것을 알 수 있다.¹³⁾ 한편 <차

雲間數列巒，神傍九霄遊縹緲，風生兩腋馭茫漫，擬迫笙鶴冲天舉，肯與醯鷄着瓮乾，剩把乾坤供俛仰，無邊灑氣接欄干。”『면양집』 권1.

11) 『陽谷先生集』 권1, 『한국문집총간』 23, 민족문화추진회, 1988, 312쪽.

12) “爲卜林亭只愛幽，何如杜子浣西頭，湖山隱映臨風迥，松竹蕭森背日稠，清禁直時空有夢，故園佳處總宜秋，安能白首同歸去，俛仰乾坤一散愁。”『企齋別集』 권6, 『한국문집총간』 22, 민족문화추진회, 1988, 461쪽.

면양정운>2는 “府使朴亨麟首題”라는 주석이 달려 있어 박형린(朴亨麟, ?~?)이 가장 먼저 지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박형린의 생몰년을 알 수 없는데다 작품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히 언제 지은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송순의 차운시가 1539년에 창작된 것으로 보아 박형린의 시역시 이때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 1533년 면양정을 창축한 뒤 <면양정>이라는 시를 지었고, 1537년 겨울 서용(敍用) 명령을 받아¹⁴⁾ 정계에 복귀한 후 1538년~1539년 사이에 주변 문인들에게 면양정을 소재로 한 시를 부탁하여 받고 스스로 이에 차운하는 시를 지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송순의 면양정 차운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1549년에 <차면양정운>2의 둘째 수 운을 따라 <면양정제영(俛仰亭題詠)>¹⁵⁾을 지었으며, 1552년에는 <차면양정운>1과 <차면양정운>2의 운을 합쳐 <부차면양정운(復次俛仰亭韻)> 3수¹⁶⁾를 지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그는 지속적으로 여러 문인들에게 부탁하여 이황(李滉, 1501~1570),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윤두수(尹斗壽, 1533~1601), 고경명(高敬命, 1533~1592), 임억령(林億齡, 1496~1568), 양산보(梁山

13) 엄흔(嚴昕, 1508~1543)의 문집인 『십성당집(十省堂集)』에 소세양의 원운시를 차운한 <차면양정운>이 실려 있는데 엄흔의 생몰년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시도 1538년 무렵에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遙憶茅亭景物幽, 幾回歸夢落湖頭, 開林看盡川原闊, 築逕裁來竹木稠, 俛仰政堪窮宇宙, 優游聊復度春秋, 簪纓未禁蓴鱸興, 一任吳州見月愁.” 『십성당집』 하, 『한국문집총간』 32, 민족문화추진회, 1989, 535 쪽.

14) 『중종실록』 32년(1537년) 11월 9일자에 따르면 영의정 윤은보, 좌의정 유보, 우의정 홍언필, 좌찬성 소세양 등이 귀양간 자들의 서용을 아뢰자 오직 송순만 서용을 명한다는 기록이 보인다.

15) “超然羽化孰云難, 得臥蓬萊第一巒, 腳下山川紛渺渺, 眼前天地闊漫漫, 鵬搏九萬猶嫌窄, 水擊三千直待乾, 欲御冷風雲外去, 腰間星斗帶欄干.” 『면양집』 권2.

16) “鉅野何年帶二川, 漾青翻白一亭前, 數行雁路雲邊闊, 九郡山光天外連, 風檻坐傾無事酒, 江村看起太平煙, 誰知凡界藏仙興, 鶴背高情直欲傳.” “浩蕩前頭覓句難, 吟哦終夕對晴巒, 松梢好月臨空闊, 腳底長風接渺漫, 可戀江湖歸已晚, 堪嗟肌骨老爲乾, 幸餘筋力供行樂, 遊遍山椒與水干.” “藜杖松陰步步幽, 岸巾徒倚玉溪頭, 巡簷白日行天遠, 對榻青山護野稠, 風引店煙遙度樹, 雲將浦雨細隨秋, 登臨日取無邊興, 肯着人間段段愁.” 『면양집』 권3.

甫, 1503~1557), 노진(盧禎, 1518~1578) 등으로부터 면양정 차운시를 받았다.¹⁷⁾ 그리고 이런 전통은 송순 사후에도 이어져서 담양을 방문한 술한 인사들이 면양정 차운시를 남기게 되었다.

면양정 창축 시기에 지은 또 다른 작품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의 시조다.

十年을 經營하여 草廬 三間 지어 내니
나 흐 간 들 흐 간에 淸風 흐 간 맞겨 두고
江山은 들일 디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¹⁸⁾

이 시조는 김천택의 『청구영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가집에 작자 미상으로 실려 있으나 송순의 문집인 『면양집』에 이를 한역한 것¹⁹⁾이 실려 있어 그의 작품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다. 이 작품은 ‘十年’이라는 시간 표지어와 ‘草廬’라는 공간 표지어를 통해 면양정 터를 구입한 지 10년째 되는 해인 1533년에 초정(草亭) 형태로 창축한 뒤 지은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면양정 창축 후 지은 것으로 파악한 <면양정가(俛仰亭歌)> 삼언(三言)²⁰⁾의 경우 정확한 창작 연대를 알 수 없다. 『면양집』에 수록된 시들은 창작 연대순으로 편집되어 있는데, 검토 결과 권1에 수록된 시들은 1520년~1540년, 권2에 수록된 시들은 1542년~1549년, 권3에 수록된 시들은 1550년~1577년에 창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17) 이들이 지은 것 중 창작 연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황과 고경명의 시뿐이다. 송순의 <부차면양정운>(『면양집』 권3)의 뒤에 덧붙인 이황의 차운시에는 짝막한 <소서(小序)>가 붙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 시는 송순이 선산부사를 마치고 떠날 때(1555년) 지어준 것이다. 고경명의 시에는 용경(隆慶, 중국 명나라 목종의 연호) 6년(1572년)이라는 주석이 붙어 있다.

18) 김천택, 『청구영언』, 조선진서간행회, 1948.

19) “經營兮十年, 作草堂兮三間, 明月兮淸風, 咸收拾兮時完, 惟江山兮無處納, 散而置兮觀之.” <俛仰亭雜歌> 第二, 『면양집』 권4.

20) “俛有地, 仰有天, 亭其中, 興浩然, 招風月, 挹山川, 扶藜杖, 送百年.” 『면양집』 권3.

권3의 끝에서 네 번째 작품인 <제방사계준부응현정사(題房沙溪俊夫應賢精舍)>에는 “此下年月未攷”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따라서 이하 4수는 창작 연대를 알 수 없는 작품들을 마지막으로 배치했음을 알 수 있는데 <면양정가(俛仰亭歌)> 삼언(三言)은 바로 이 부분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정확한 창작 연대를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이를 1533년 면양정 창축 시에 지은 것으로 본 것은 순전히 연보의 기록²¹⁾에 의존한 때문이다. 그러나 연보의 기록에는 여러 군데서 오류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하기로 하겠다.

지금까지 1533년 면양정 창축과 그 연장선에서 창작된 작품들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렇다면 1552년 면양정을 증축했을 당시에는 어떤 시문들이 창작되었을까? 연보에 따르면 이때 기대승이 기(記)를, 임제(林悌, 1549~1587)가 부(賦)를 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²²⁾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1552년은 임제의 나이 4살 때로 이때 <면양정부>를 지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임제가 송순의 부탁으로 <면양정부>를 지은 것은 1576년 5월이다.²³⁾ 그럼 기대승의 <면양정기>는 어떤가? 기대승의 <면양정기>는 현재 긴 것과 짧은 것 2종이 전하고 있다. 이 중 긴 것은 작품 중에 “今完山府尹宋公”이라는 표현이 있어 송순이 전주부윤으로 있던 1558년~1560년에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1) “癸巳嘉靖十二年，中宗二十八年，先生四十一歲。安老既柄國得志，沈貞竄死，張順孫韓效元金謹思又後先入相，俱安老黨也。用事蔡無擇許沆之徒(進士同年也)，締附煽亂，斥賢類無虛日。先生憤然面折其惡，亦自分必敗，就鄉莊創築俛仰亭，即俛仰宇宙之義也。有三言詩，自是優游，旋不復葺，而聽松爲書亭額。” <議政府右參贊俛仰亭先生年譜>，『면양집』 권5.

22) “壬子嘉靖三十一年，明宗七年，先生六十歲。閏三月二十三日，命敍外任。二十六日，降授善山都護府使。四月二十二日，入謝。五月初二日，起行。初九日，到府。府境古稱多士豪難治，重以荐歎，民罔奠居。先生不嫌龍蛇，推置赤心，愛形於色，奸吏亦不忍欺。於是民吏大化，或肩輿出路，遠近必加額呼父。御史褒聞，上特賜表裏一襲。○遊黃孤山耆老梅鶴亭。○八月，孫德美生。○潭陽府使吳公謙，偕登俛仰亭，勸以重葺，且許助力，是歲成之。奇高峯大升記之，林白湖悌又賦之。” 위의 책.

23) 『한국문집총간 해제』 2, 민족문화추진회, 1998.

짧은 것은 작품 시작 부분에 “今四宰宋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재(四宰)’는 의정부 우참찬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이 글은 송순이 의정부 우참찬을 지낸 1569년에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대승이 왜 이렇게 2종의 <면앙정기>를 쓴 것인지 의문이지만²⁴⁾ 여기서는 논의의 초점을 면앙정 중첩과 <면앙정기>의 창작에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뒤에 창작된 것은 일단 논외로 하고 먼저 창작된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대승의 <면앙정기>가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앞서 말한 대로 1558년~1560년의 일이다. 그러나 <면앙정기>에 대한 논의가 이때 시작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 <면앙정기>에 대한 논의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내 일찍이 공(송순)을 면앙정 위에서 배알하였는데, 공은 나에게 말씀하였다.

“옛날 이 정자가 없을 때에 곽씨(郭氏) 성을 가진 자가 이곳에 살고 있었네. 그는 일찍이 꿈에 자금어대(紫金魚袋)와 옥대(玉帶)를 띤 학사들이 이 위에서 모여 노는 것을 보고는 자기 집안이 장차 일어날 것이요, 그 아들이 이 꿈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네. 그리하여 아들을 승려에게 부탁하여 글을 배우게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또 곤궁하게 되자 마침내 그곳에 있는 나무를 베어 버리고 사는 곳을 옮겼다네. 내가 갑신년(1524, 중종19)에 돈을 주고 이곳을 샀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투어 와서 서로 축하하기를 ‘이 기이하고 아름다운 땅을 공이 마침내 얻었으니, 이것은 아마도 곽씨의 꿈이 조짐이 된 것일 것이다.’ 하였다네. 나 역시 이 산수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였으나 관직에 매여 조정에 있어서 감히 몸을 이끌고 물러나지 못하였다네. 그 후 계사년(1533)에 체직되어 시골로 돌아와서 비로소 초정(草亭)을 엮어 바람과 해를 가리고는 5년 동안 한가로이 놀았다. 그러다가 곧바로 다시 버리고 가니, 이 정자는 비바람을 맞음을 면치 못하였고 다만 나무 그늘이 너울거리고 풀과 쭉대가 무성할 뿐이었던네. 경술년(1550, 명종5)에 나는 관서(關西)로 귀양 갔는데, 두려워하고 군색하여 온갖 일을 패념(掛念)치 않았으나 오히려

24) 뒤에 쓴 것은 먼저 쓴 것의 절반 분량이다. 그리고 내용상에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일부에서 뒤에 살피게 될 소세양의 <면앙정기>의 내용을 차용한 것이 보인다. 따라서 소세양의 <면앙정기>를 참고하여 먼저 쓴 글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라 하겠다. 이는 아마도 현판으로 제작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자를 수리하여 그곳에서 늪지 못함을 한으로 여겼다네. 신해년(1551)에 은혜를 받아 방면되어 돌아오니, 옛날 소원을 다소 이룰 수 있었으나 재력이 부족하여 또 계책을 세울 수 없었네. 하루는 부사(府使) 오공 겸(吳公謙)이 마침 와서 이곳에 함께 올라와 보고는 나에게 정자를 이룰 것을 권하였으며 또 재정을 도와줄 것을 허락하였네. 마침내 다음 해인 임자년(1552) 봄에 역사를 시작하여 몇 달이 채 못 되어서 완공되었네. 집이 대강 완전해지자 숲이 더욱 무성하였네. 나는 이곳에 한가로이 노닐며 굽어보고 우러러보아 여생을 보내게 되었으니, 나의 평소 소원이 이제야 이루어진 셈이네. 아, 내 이곳을 점거한 지가 지금 30여 년이 지났는데, 인사(人事)의 득실은 참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정자가 폐지되었다가 다시 일어난 것은 또한 운수가 그 사이에 있는 듯하네. 이 일을 살펴보면 감회가 절로 일어나니 이것을 글에 의탁하여 쓰지 않을 수 없네. 자네는 나를 위하여 기문(記文)을 지어 주게.”

내가 문장이 졸렬하다고 사양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 다시 공에게 말씀하였다.

“저 푸르른 하늘을 누가 우러러 떠받들지 않으며 아득한 땅을 누가 굽어보며 밟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이연(所以然)을 알아서 이것을 자신에게 돌이키는 자는 적습니다. 지금 공께서는 이미 이것을 마음속에 얻고 이것으로 정자의 이름에 뜻을 부쳤으니, 그 호연(浩然)한 흥취는 진실로 일반인은 감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건의 변화는 무궁하고 인생은 한계가 있으니, 한계가 있는 인생으로서 무궁한 변화를 다스리려면, 땅을 굽어보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이에 천지의 영허(盈虛)하는 이치와 인물의 영취(榮悴)하는 진리를 마음에 경영하여 스스로 힘쓰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찌 산수의 낙(樂)에만 오로지 할 뿐이겠습니까. 아, 송공이 아니라면 누가 능히 이 정자의 이름에 걸맞을 수 있겠습니까.”²⁵⁾

25) “余嘗拜公於亭上，公爲余言曰。昔亭之未有也，有郭姓者居之。嘗得異夢，見金魚玉帶學士，聯翩盍簪於其上，意其家之將有興，而謂其子之膺是夢也。託之僧以學書，及其無成而且窮也，乃伐其樹而遷其居。僕於甲申年間，以財貨之，里人競來相賀曰，以茲地之奇勝，而公乃得之，豈郭之夢，有所兆朕者歟。僕亦愛其溪山之勝，而繫官在朝，不敢引身。癸巳歲，遞職還鄉，始縛草亭，以蔽風日，優遊五載。旋復棄去，則亭不免爲風雨所揭，獨樹陰婆娑，而草萊蕪沒矣。庚戌，謫關西，揣慄窘束，百念不掛，猶以未克葺亭以終老，爲恨也。辛亥，蒙恩放歸，宿昔之抱，可以少償，而財力短乏，又無以爲計。一日，府使吳公謙，適來同登，勸僕成之，且許相助。遂於壬子春，起其役，不幾月而功訖，棟宇粗完，而林薄益茂，逍遙俛仰，以遣餘生，僕之素願，於是乎畢矣。嗚呼，僕之占此，于今三十餘年，人事之得喪，固有難言，而亭之廢而起者，亦若有數存焉者。撫事興懷，不可不托于斯文，子其爲我記之。余以文拙辭不獲，則又以言于公曰。蒼蒼者，孰不仰而戴之，茫茫者，孰不俛而履之。然而知其所以然，而能反之於身者，蓋寡矣。今公

<면양정기>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기대승이 <면양정기>를 쓴 것은 송순의 부탁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는 알 수 없으나 기대승은 부탁을 받고 바로 <면양정기>를 짓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²⁶⁾ 인용문 첫 부분에 있는 ‘일찍이’라는 표현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기대승은 글을 부탁하는 송순의 말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기대승이 송순으로부터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은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쯤일까? 송순의 말을 전하는 부분의 거의 말미에 “내 이곳을 접거한 지가 지금 30여 년이 지났는데”라는 표현이 있다. 송순이 면양정 터를 사들인 것이 1524년이니 이때부터 30년 뒤는 1554년이다. 그러므로 송순이 기대승에게 글을 부탁한 것은 이 이후 언제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송순은 1553년 봄부터 1555년 봄까지 선산부사를 지냈으므로 글을 부탁한 시점은 선산부사를 마치고 담양으로 돌아온 1555년 즈음으로 생각된다.

이런 사실은 또 다른 <면양정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면양정기>는 기대승이 쓴 2종 이외에 둘이 더 있다. 그 중 하나는 앞서 소개한 심중량의 <면양정기>이다. 이 글은 송순 사후인 1700년에 창작된 것이므로 송순의 의지와 무관하게 심중량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쓴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소세양의 <면양정기>이다. 소세양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순의 부탁을 받아 면양정을 소재로 한 시를 맨 먼저 창작한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면양정기> 또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편 면양정 중첩 이후 창작된 것으로 <면양정기> 외에 <면양정삼십

既以得之於心，而寓之於名，其浩然之興，固有人所不敢知者。然物變無窮，而人生有涯，以有涯之生，御無窮之變，則於其俛仰之間，而天地之盈虛，人物之榮悴者，亦不可不經于心，而以之自勵也。夫豈專於山水之樂而已哉。噫，微吾公，孰能稱是名也哉。”『고봉집』 권2, 『한국문집총간』 40, 민족문화추진회, 1989, 81쪽. 번역은 ‘『국역 고봉집』 2, 민족문화추진회, 1998.’을 따름.

26) 글의 끝에서 부탁을 사양하며 덧붙인 말을 참고해 보면 기대승은 대선배 문인을 위한 기문을 짓는데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던 듯하다.

영>을 들 수 있다. <면양정삼십영>은 『면양집』에 김인후, 고경명, 임억령, 박순(朴淳, 1523~1589) 등이 지은 4편이 실려 있고 그 밖에 양대박(梁大樸, 1544~1592)의 『청계집(靑溪集)』 권1과 이홍남(李洪男, 1515~?)의 『급고유고(汲古遺稿)』 권하에 각 1편씩이 실려 있다. 총 6편 중 창작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대체적인 추정은 가능하다.

6명 중 가장 먼저 <면양정삼십영>을 창작한 것은 김인후로 보인다. 김인후는 1560년 1월 16일에 사망했으므로 송순이 선산부사를 마치고 돌아온 1555년부터 1559년 사이에 이 작품을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으로 지은 것은 임억령인 듯하다. 그의 <면양정삼십영> 제13 ‘석불소종(石佛疏鍾)’²⁷⁾에는 “十載爲朝士”라는 구절이 있다. 이로 보아 1552년 동부승지를 명받아 벼슬길에 나갔다가 1559년 담양부사를 끝으로 벼슬길에서 물러난 뒤 1560년에 김성원(金成遠, 1525~1597)이 지어준 서하당과 식영정에서 생활하던 즈음에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²⁸⁾ 송순은 김성원의 시에 차운하여 <차김상사성원식영정운(次金上舍成遠息影亭韻, 2수)>을 지었고, 임억령의 <식영정이십영>에 화답하는 <봉화식영정임석천이십영(奉和息影亭林石川二十詠)>을 지었는데 이는 나주목사를 지내고 돌아온 1563년 가을의 일이다. 송순의 <봉화식영정임석천이십영>은 임억령의 <면양정삼십영>에 감사하는 성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면양정삼십영>은 1563년보다 먼저 지어졌다고 봐야할 것 같다. 그런데 1560~1563년 사이에 송순과 임억령이 만날 수 있었던 기간은 1560년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1561년 정월에 중국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상경했고 곧바로 나주목사로 체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억령의 <면양정삼십영>은 1560년에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경명의 <면양정삼십영>은 『제봉집』 권2에 수록되어 있는데 을축년(1565년)에 지은 시들 사이에 배치된

27) “十載爲朝士，聞鍾夢每驚，如今林下睡，何似昔年聲。” 『면양집』 권7.

28) 기존 연구 중 박병익도 이렇게 추정한 바 있다. ‘박병익, 「<면양정삼십영>과 자연 경물에 대한 미학」, 『고시가연구』 제2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참조.

것으로 보아 이 해에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²⁹⁾ 박순의 경우 『사암집(思菴集)』 권1에 <제송사재순면양정삼십운(題宋四宰純俛仰亭三十韻)>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어 송순이 의정부 우참찬을 지낸 1569년에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양대박의 경우는 박순보다 더 늦은 시기에 창작했다고 봐야할 듯하고 이홍남의 경우는 추정조차 쉽지가 않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 1552년 면양정 중첩 이후에 창작된 시문으로 <면양정기>와 <면양정삼십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면양정 창축 때와 달리 면양정 중첩을 기념할 만한 송순 자신의 작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면양정 중첩 이후에는 주변 문인들에게 시문을 부탁하기만 한 것일까? 이제 이 의문에 답을 하기 위해 <면양정가> 창작 시기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3. <면양정가> 창작 시기

지금까지 1533년 면양정 창축, 1552년 면양정 중첩과 관련하여 창작된 시문들에 대해 주로 그 창작 시기를 중심으로 자세히 고찰해 보았다. 이는 관련 시문들이 창작된 정확한 시기를 알고자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면양정가> 창작 시기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앞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면양정가>의 창작 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면양정가>의 창작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대체로 다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1533년(41세) 설 : 김동옥,³⁰⁾ 정익섭,³¹⁾ 이상보,³²⁾ 박준규³³⁾ 등

29) 『제봉집』은 시체(詩體)의 구분 없이 연도별로 배열되어 있다.

30) 김동옥, 「임란전후 가사연구-특히 <면양정가>에 대하여-」, 『진단학보』 25~27 합병호, 진단학회, 1964.

1552년(60세) 설 : 이종건,³⁴⁾ 김성기³⁵⁾ 등

1569년(77세) 설 : 조운제,³⁶⁾ 김사엽³⁷⁾ 등

1533년(41세) 설은 이 해에 면양정이 창축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면양정가> 삼언이 창작되었으며 이 삼언시가 <면양정가>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삼언시는 1533년에 창작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본문의 기록과 연보의 기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1552년(60세) 설은 이 해에 면양정이 증축되었고 이를 기념하여 <면양정기>, <면양정부>, <면양정삼십영> 등 각종 시문들이 지어졌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연보의 기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앞에서 밝혀졌다. 이 해에 대한 연보의 기록은 특히 문제가 많은데 이 때 창작되지도 않은 <면양정기>, <면양정부>를 여기 기록한 것도 그렇지만 더 심각한 것은 선산부사 제수와 관련된 것이다. 연보에는 이 해 윤삼월 26일에 선산부사를 제수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³⁸⁾ 하지만 『명종실록』을 확인해보면 송순이 선산부사를 제수 받은 것은 1552년(60세)이 아니라 1553년(61세)이다.³⁹⁾ 이에 따라 기준에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로는 담양부사 오겸의 도움을 받아 면양정을 증축한 1552년에 송순은 담양에 거주하고

31) 정익섭, 「면양정가단의 형성과 시가활동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55~57합집, 국어국문학회, 1972.

32) 이상보, 『한국가사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74.

33)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조선전기시단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34) 이종건, 「송순의 시가론」,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1979.

35) 김성기, 「송순의 시가문학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논문, 1990.

36) 조운제, 『조선시가사강』, 동광당서점, 1937.

37) 김사엽, 『이조시대의 가요연구』, 대양출판사, 1956.

38) 앞의 주 20) 참조.

39) 명종 8년(1553년) 윤3월 26일 두 번째 기사. 한편 『면양집』 권3에도 <癸丑閏三月二十三日, 外任絛用之命始下, 二十六日, 除善山府使, 四月二十二日, 入京謝恩, 五月初二日, 拜辭而出, 馬上口占(3수)>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해에 <면양정가>가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569년(77세) 설은 송순이 벼슬길에서 완전히 물러난 1569년(77세) 이후 만년에 지었다고 보는 입장으로 초창기 선학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그러나 이 설은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기보다 추측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상 기존의 세 학설 중 다시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1552년(60세) 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기로 한다.

송순은 이조참판으로 있던 1550년 사론(邪論)을 편다는 논란에 휩싸이게 되고 그 여파로 5월 15일 관작을 삭탈당하고 5월 17일 중도부처(中道付處)⁴⁰⁾의 명을 받게 된다. 며칠 뒤인 5월 22일 중도부처의 명이 가뺨다는 논의가 있어 평안도 순천(順川)으로 유배지를 옮기라는 명을 받아 거기서 1년 정도 유배생활을 했다. 그 후 1551년 6월 1일 근도(近道)로 양이(量移)하라는 명이 떨어져 수원(水原)으로 옮겨 지내다가 11월 11일 석방 명이 떨어져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었다.⁴¹⁾ 유배에서 풀려나 담양으로 돌아온 송순은 담양부사 오겸과 함께 정자에 올랐다가 손질할 것을 권하는 오겸의 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게 되며 이렇게 하여 시작된 면양정 중첩 공사는 1552년 봄에 시작되어 몇 달 만에 완공되었다.⁴²⁾ 따라서 송순은 면양정 중첩 이후에도 1552년 여름 무렵부터 다음해 윤3월까지 담양에 거주하였으므로 이때 <면양정가>를 지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시문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볼 때 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면양집』 권3에는 유배지에서 돌아온 1551년 겨울부터 선산부사로 다

40) 중도(中道)는 근도(近道), 원도(原道)의 대칭으로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를 가리킨다. 중도부처는 이 중도 중 어느 곳으로 귀양 보내는 것이다.

41) 이상의 내용은 『명종실록』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42) 기대승, <면양정기>. 앞의 주 22) 참조.

시 나간 1553년 봄 사이에 창작된 시 24편이 실려 있는데⁴³⁾ 이 중 면양정 관련 시는 <차충화제면양정절구(次沖和弟俛仰亭絕句, 4수)>와 <부차면양정운(復次俛仰亭韻, 3수)> 등 2편뿐이다. <차충화제면양정절구>는 송순의 아우인 송인(宋綱, ?~?)이 면양정을 소재로 지은 절구에 차운한 것이다. 송인은 1551년 면양정 상류 10리쯤에 제승정(濟勝亭)을 구축하여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서로 왕래하며 시를 주고받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에서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부차면양정운>은 이미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차면양정운>1과 <차면양정운>2의 운을 합쳐 새로 지은 것이다. 면양정 관련 시 둘을 합쳐 새로운 3수 형태의 시를 창작했다는 점에서 면양정 중첩과 연관시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면양정 창축 이후 진행된 면양정 차운시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과 이 무렵(1551년 겨울~1553년 봄)에 지은 시 24편 중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어 선산부사로 떠나기 직전인 1553년 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이것이 <면양정가>, <면양정기>, <면양정부>, <면양정삼십영> 등에 대한 종합적 구상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면양정가>, <면양정기>, <면양정부>, <면양정삼십영> 등에 대한 종합적 구상은 송순이 선산부사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1555년(63세)에서 전주부윤으로 다시 출사한 1558년(66세)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송순이 기대승에게 <면양정기>를 부탁한 것이 이때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면양정삼십영> 중 가장 먼저 창작된 김인후의 시도 1555년~1559년으로 추정된 바 있다. 임제에게 <면양정부>를 부탁한 것은 이보다 훨씬 뒤의 일이지만 <면양정기>와 <면양정삼십영>을 부탁한 시기가 거의 겹친다는 것은 그저 일시적이고 개별적인 차원의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선산부사를 마치고 돌아온 송순은 면양정 중첩 이후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아 생각만 하고 실천으로는 읊

43) 이는 <부차면양정운(復次俛仰亭韻, 3수)>의 뒤에 달려 있는 “自尹上舍新舍至此, 放還家鄉後所作.”이라는 주석을 통해 알 수 있다.

기지 못했던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그가 고려한 것은 면양정 창축 이후 기획한 것과 일정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었다. 이런 차원에서 그는 면양정 창축 당시에는 전혀 구상하지 않았던 <면양정기>와 <면양정삼십영>을 새로 구상하여 이를 가장 가까운 지역 문인인 기대승과 김인후에게 각각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무렵 송순의 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이것들이라기보다 창축 시의 시조 창작과 차별화되면서도 그것과 좋은 짝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국문시가인 가사를 창작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면양정가> 또한 이 무렵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소 번거롭더라도 소세양의 <면양정기> 전문을 인용해 보기로 한다.⁴⁴⁾

① 추성(秋城)⁴⁵⁾ 남쪽 소 두 마리가 우는 듯한 형상을 한 땅에 골짜기가 있어 기곡(錡谷)이라 한다. 이곳은 송씨의 토구(菟裘)⁴⁶⁾로, 노송 송희경(宋希璟) 선생이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나 쉴 때 처음으로 터를 잡아 살았으며 이로 인해 자손들이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 기곡 곁 작은 마을은 넓고 평편하여 고자동(高子洞)이라 하는데 땅이 비옥하고 샘물이 달콤하고 맑다. 기촌(企村)이라 새로 명명하고 집을 지었다. 집의 주봉을 제월봉(霽月峯)이라 하는데, 산세가 동쪽으로부터 길게 꾸불꾸불 이어지다가 제월봉에 이르러 우뚝 솟으니, 마치 용이나 호랑이가 꿈틀거리는 듯하다. 서쪽으로 몇 리를 달리면 뚜렷하게 혈기가 뭉친 것이 일곱 굽이인데 일곱 굽이 중 가장 높은 곳에 정자가 날개를 편 듯이 있으니 면양정(倅仰亭)이라 한다. 이는 모두 노송의 4대손으로 지금 대윤(大尹)⁴⁷⁾으로 있는 수초(守初)⁴⁸⁾ 씨가 만든 것이다.

② 집에서 정자까지는 겨우 백보쫘이다. 길이 산허리를 돌면 소나무와 대나무가 서로 그림자를 드리워서 지팡이를 짚고 왕래하노라면 따가운 햇볕이 침범할 수 없다. 정자에 올라 바라보면 기암괴석이 산꼭대기에 죽 늘어서 있

44) 지금까지 소세양의 <면양정기>는 전문이 소개된 적이 없다. 이종목의 『조선의 문화공간』 2권(휴머니스트, 2006)에 2/3 정도가 소개된 바 있다.

45) 담양의 옛 이름이다.

46) 벼슬을 내놓고 은거하는 곳이나 노후에 여생을 보내는 곳을 이르는 말이다.

47) 여기서의 전주부윤을 가리킴.

48) 송순의 자(字)임.

으며, 그 아래 석불사(石佛寺)가 있어 종소리와 경쇠소리가 정자 위로 떨어지는 것은 용귀산(龍龜山)이다. 칼과 창을 세운 듯이 용귀산과 함께 나란히 우뚝 솟아 정자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것이 몽선산(夢仙山)이다. 외로운 봉우리가 특출하여 구름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치솟은 것은 용암산(壘巖山)이다. 여러 층과 겹으로 중첩된 산봉우리들이 에워싸서 북쪽을 가리고 있는 것은 용천산(龍泉山)이다. 석벽이 높고 험하며 가로로 잘라 베어낸 것 같은 것을 추월산(秋月山)이라 하는데 곧 고을의 진산(鎭山)이다. 두 봉우리가 쌍으로 뻗어 마치 말의 귀와 같은 것은 용진산(湧珍山)이고, 길게 뻗어 자리를 지키고 있어 마치 누운 소와 같은 것은 수연산(脩緣山)이다. 서남쪽에 마치 성곽처럼 둘러싸고 병풍처럼 빙 두른 것은 나주의 금성산(錦城山)이고, 동남쪽에 반원 모양으로 한데 어울려 은은하게 긴 눈썹처럼 보이는 것은 광주의 서석산(瑞石山)이다. 여러 산들이 사방 들레에서 두 손을 맞잡고 읊을 하는 듯하다. 가까이로는 푸른빛을 한데 모아 빼어난 모습을 취할 수 있고, 멀리로는 양갈래로 뿔뿔이 나뉘어 머리나 소라 모양 상투 같은 산들이 아득한 안개 사이로 점점이 이어진 것이 마치 수목화와 같다.

③ 물은 세 갈래가 있다. 하나는 옥천산(玉泉山)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정자 아래에 이르러 용천산(龍泉山)의 물과 합쳐진 뒤 감돌고 굽돌아 깊이 채우고 멀리 미치는데, 빠르게 헤엄치는 물고기를 구부러 내려다보면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여계(餘溪)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용천산에서 나와 모여서 용연(龍淵)이 되고 북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정자에서 10여 리를 간 뒤 목산촌(木山村)을 가로질러 정○리(定○里)에 이르러 용천산과 옥천산의 두 물과 합류한다. 세 갈래 물이 합류하면 배를 띄울 수 있을 정도로 커지지만 바야흐로 그것들이 합쳐지기 전에는 등진 듯 향하는 듯 숨었다 나타났다 한다. 양쪽 벼랑에는 모래와 자갈이 세월에 단련되어 눈을 깔아 놓은 듯하다. 눈길에 다하는 곳에서 비로소 합하여 하나가 되어 한 줄기 긴 강은 도도하게 바다로 나아간다. 큰 비가 왔다가 그치고 나면 파도가 넘실거리 아득히 물가가 사라져 정말 큰 바다가 그 너머에 있는 것 같으니, 이것이 곧 산과 물이 정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④ 정자 앞에는 넓은 들판이 40여 리나 뻗어 있다. 밭두둑은 수를 놓은 듯 여러 빛깔로 뒤섞여 있어 평탄한 곳은 마치 바둑판과 같다. 그 사이에 길고 평평한 숲이 있다. 정(井)자 모양으로 마을을 이루고 있고, 무궁화 울타리를 한 초가집이 소나무와 대나무에 가려져 있다. 한 줄기 밥 짓는 연기가 곳곳에서 피어나고, 나무꾼의 노랫소리와 목동의 피리소리가 앞뒤에서 서로 답을 한다.

⑤ 이것은 비록 정자에 올라야만 조망할 수 있는 승경(勝景)이지만 또한

태평시대의 기상도 볼 수 있다. 봄이 되면 맑은 물로 논밭을 가는 모습, 여름에는 초록 밭에서 김을 매는 광경, 가을의 벼들과 겨울의 눈 풍경 등 사시(四時)의 경관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안개와 구름이 숨었다 나타나면 곱게 상투를 튼 것 같은 산봉우리들도 나타났다 사라지니, 산간에서 아침저녁으로 변하는 모습 또한 계석(几席)의 아래에서 기이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다. 아아, 산천이란 것은 천지 사이의 무정한 사물이지만 반드시 사람을 기다려 드러나게 된다. 산음(山陰)의 난정(蘭亭)이나 황주(黃州)의 적벽(赤壁)은 왕희지(王羲之)와 소동파의 붓이 없었더라면 황량하고 적막한 물가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니 어찌 후세에 이름을 드러낼 수 있었겠는가?

⑥ 정자의 터에는 옛날에 곱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 꿈에 자주 높은 벼슬아치들이 그 집에 무더기로 모여들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집에 장차 큰 경사가 있을 것이다.”라 하고 아들로 하여금 학문을 이루게 하였으나 학문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와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그 땅을 팔고 탄 데로 감에 마침내 수초가 점유하게 되었으니 어찌 뜻이 맞아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처음에는 초정(草亭) 몇 칸으로 지었으나 세월이 오래되어 퇴락하고 훼손되었다. 지금 민부상서(民部尙書)⁴⁹⁾로 있는 경부(敬夫) 오겸(吳謙)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이 고을의 수령으로 나갔었다. 임자년(1552년) 봄에 경부를 데리고 함께 올라 나무 그늘로 가 앉았는데 경부가 쇠퇴한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을 힘써 권하고 또 그 비용도 보태겠다고 하였다. 곧이어 수령이 일을 맡기고 초당에 필요한 재물도 보내주었으니, 우윤원(于允元)⁵⁰⁾이 매산전(買山錢)을 준 것과 같은 뜻이다. 옛날의 제도에 따라 그것을 탁 트이게 하니 구축된 정자는 삼영(三楹)이다. 또 그 아래에 터를 평평하게 하여 사영(四楹)으로 집을 지었다. 그 안에 서화(書畫)를 모아두고, 낮은 울타리를 둘렀으며, 화훼를 즐지어 심었다. 이에 세월을 보내기에 적절하여 편안히 설 수 있는 곳이 되었다. 객(客)이 찾아와 면앙(俛仰)의 뜻을 물으니 응답을 번거로워하며 이에 현판에 크게 써서 이르기를, “굽어보면 땅이요, 우리르면 하늘이요, 정자가 그 가운데니, 흥취가 호연하여라. 풍월이 손짓하고, 산천이 읍하니, 청려장에 의지하여, 백년을 보내리라.”고 하였다. 객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름이 과연 일컬을 만하다.”라 하였다.

⑦ 대저 수초가 수령이 되어 고을을 다스린 지 3년으로 임기가 차서 장차 수레를 돌려 돌아가려 함에 산천의 원위(源委)와 정자를 지은 수미(首尾)를

49) 호조판서를 가리킴.

50) 중국 당나라 때 사람 우적(于頔, ?~818)을 가리킨다. 윤원은 그의 자다. 우적이 양양(襄陽)을 진무(鎭撫)할 때 여산(廬山) 사람 부재(符載)가 편지를 가지고 그에게 와서 매산전(買山錢) 백만금을 빌려달라고 하자 즉시 주었다는 고사가 있다.

다 갖추어 기록하여 편지로 내게 정자의 기를 청하였다. 내가 이에 그 말을 모아 차례를 정하여 다시 썼다. 가정 경신년(1560년) 칠석에 모(某)가 쓰다.⁵¹⁾

소세양의 <면양정기>는 위에서 보듯 일곱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①은 기촌과 면양정 소개, ②는 면양정 주위를 둘러싼 산, ③은 면양정 앞을 흐르는 물, ④는 정자 앞 들판의 모습, ⑤는 태평시대 사시의 풍경, ⑥은 면양정의 내력, ⑦은 기를 부탁 받은 사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51) “秋城南兩牛鳴地，有谷曰錡。迺宋氏菟裘，老松先生諱希璟，致政休退，始卜居之，而子孫因家焉。谷之旁小洞，擲而盤曰高子，地肥美，井泉甘冽。名以企村而作堂。堂之主峯曰霽月，山勢自東蜿蜿蜒蜒，至霽月而斗起，猶龍挈虎攫。西驚數里，而嶄然融結者凡七曲，曲之最高，有亭翼然曰俛仰。斯皆老松四代孫今大尹守初氏所築也。由堂抵亭，僅百步許。路轉山腰，松竹交陰，策杖往來，畏景不能侵。登亭而望焉，奇巖怪石，離立豕頂，而下有石佛寺，鐘磬之音，落於亭上者，龍龜山也。劍戟巉巖，與龍龜竝峙，直對亭顏者，夢仙山也。孤峯挺拔，秀聳入雲者，瓮巖山也。層巒疊嶂，環擁蔽北者，龍泉山也。石壁嵯峨，橫截抱珥者曰秋月，即府之鎮山也。兩峯雙尖，如馬耳然者，湧珍山，灑迤蟠據，若臥牛然者，脩緣山也。如城郭周遭，如屏障縈紆於西南者，羅之錦城山，穹窿磅礴，隱約脩眉於東南者，光之瑞石山也。諸山拱揖乎四圍。近則攢青蹙翠，秀色可攬，遠則丫鬢螺髻，點綴於杳靄之間，宛然若水墨之圖。水有三派。一則發源於玉泉山，西流到亭下，與龍泉水合，紆餘屈曲，泓涵演迤，澈澈游鱗，俯瞰可數者曰餘溪。一則出龍泉山，匯為龍淵，自北流西，去亭十餘里，橫過木山村，至定○里下，又與龍玉兩川合。三水合流，大可行船，方其未合也，若背若向，或隱或見。兩岸沙磧，曳練鋪雪。目力欲窮，始合為一，一帶長江，滔滔赴海。及大雨新霽，波濤泛溢，茫無涯涘，正如大瀛海環其外，此則山水之為亭有者然也。亭前曠野，延袤四十餘里。畦壟繡錯，坦若局面。間有長林不楚。井落成村，槿籬茅屋，掩翳松篁。一抹炊煙，處處而起，樵歌牧笛，前後互答。此雖亭中登眺之勝，而亦可以觀大平之氣象也。至於春耕白水，夏耘綠苗，秋之穞穞，冬之瓊瑤，四時之景畢備。而煙雲吞吐，鬢髻出沒，山間朝暮之變態，亦莫不效奇於几席之下矣。噫，山川者，天地間無情之物也，然必待人而顯。山陰之蘭亭，黃州之赤壁，若無羲之長公之筆，則不過為荒寒寂寞之濱，烏足以名後世乎？亭之基，舊有郭姓人居焉。屢夢冠蓋全集其第，語人曰，吾家將有大慶，遣子就學，學既不成。迺盡斫竹木，賣其地而之他，竟為守初所占，豈非有遇而然歟？初作草亭數間，歲久頽毀。今民部尚書吳公謙敬夫，為養出守是府。壬子春，拉敬夫同登，就樹陰而坐，敬夫力勸起廢，且助其費。即王錄事寄草堂贊，于允元與買山錢之意也。因舊制啟之，構亭三楹。又於其下，夷其址，營屋四楹。聚書畫其中，繚以短垣，列植花卉。於是，涼燠得宜，游息有所。客來問俛仰之義，勞於答應，則迺大書于櫓曰，俛有地，仰有天，亭其中，興浩然，招風月，揖山川，扶藜杖，送百年。客咲曰，名果稱也。夫守初製錦沛府三載，政成將旋軫而歸也，具錄山川之源委，經始之首尾，簡我求亭記。余迺纂次其語而復之。嘉靖庚申七夕，某記。”『양곡선생집』 권14, 『한국문집총간』 23, 민족문화추진회, 1988, 499쪽.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송순이 기를 부탁하면서 “산천의 원위(源委)와 정자를 지은 수미(首尾)를 다 갖추어 기록하여” 보냈다고 한 말이다. 기를 부탁한 것은 소세양에게 처음 한 것은 아니다. 소세양보다 먼저 기대승에게 부탁한 적이 있다.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대승의 <면양정기>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며, 그 회상 장면에서 들려주는 송순의 말 속에는 “내 이곳을 점거한 지가 지금 30여 년이 지났는데”라는 표현이 있다. 이를 통해 기대승이 송순으로부터 <면양정기>를 부탁 받은 것은 송순이 선산부사를 마치고 담양으로 돌아온 1555년 즈음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이 기대승의 <면양정기>에는 송순이 정자의 내력을 설명해주면서 기를 부탁했다는 내용만 등장한다. 즉 산천의 원위(源委)에 대해 들려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는 아마도 기대승의 경우 직접 면양정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기를 부탁 받을 때도 면양정에서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소세양의 경우는 달랐다. 그는 면양정에서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고 중앙 정치무대에서 교분을 쌓은 사이였다. 따라서 그에게 기를 부탁하면서도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해주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전히 소세양에게 기를 부탁하기 위해 산천의 원위와 정자의 내력을 처음으로 정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정자의 내력은 이미 기대승에게 기를 부탁할 때도 정리된 형태의 내용이 있었던 것이고 산천의 원위 또한 당시 면양정을 드나들던 주변 문인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유된 것들이 있었고 이를 송순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듯하다. 이는 기대승의 <면양정기>와 소세양의 <면양정기>가 세부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도 꽤 있지만 전반적인 산천의 형세에 대한 묘사는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 송순이 소세양에게 기를 부탁하기 전에, 또는 기대승에게 기를 부탁할 무렵에 이 모든 것들을 글로 정리하고 있었다면 이때 <면양정기>가 창작되었을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고 하겠다.

소세양의 <면양정기>에 나타난 내용은 이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

다. 순서가 조금 다르고, 강조하고 부각하는 것들에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내용들은 상당 부분이 겹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면양정에 대한 소개, 산과 물과 들의 모습, 태평시대에 사시의 풍경을 즐기는 흥취 등이 빠짐 없이 나타나 있다. 특히 ①의 밑줄 친 부분처럼 일부 내용들은 <면양정가>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다음으로 소세양의 <면양정기>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⑥의 밑줄 친 부분이다. 객이 면양의 뜻을 묻는 물음에 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여기 제시된 내용은 앞서 창작 시기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던 <면양정가> 삼언 바로 그것이다. 이 삼언시는 보는 바와 같이 <면양정가> 및 송순의 면양정 풍류를 너무나도 잘 압축해서 나타내주고 있다.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1533년 면양정 창축 시에 이 시가 창작되었다는 연보의 기록을 바탕으로 <면양정가> 또한 이때 창작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시는 창작 연대를 알 수 없는 4수에 포함되어 문집에 실려 있다. 그래서 창작 시기를 알 수 없던 것인데 그 삼언시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소세양은 송순이 직접 “정자를 지은 수미(首尾)를 다 갖추어 기록하여” 보냈다고 했고, 위의 내용을 보면 정자를 중증한 이후 사람들이 하도 면양의 뜻을 묻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현판을 제작한 것처럼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삼언시를 지은 것도 선산 부사를 마치고 돌아온 1555년부터 전주부윤으로 나간 1558년 사이로 생각된다. 그러면 <면양정가>와 <면양정기> 삼언의 선후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마도 <면양정가>를 먼저 짓고 그 뒤에 이를 최대한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삼언시를 지어 현판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면양정기>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에서 가장 활발하게 제기된 문제는 <면양정삼십영>과의 관련성이라 할 수 있다.⁵²⁾ 양자의 내용적, 표현

52) 박연호, 「면양정 원림과 <면양정기>-공간의 성격과 문화교육적 의미를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제22집, 개신어문학회, 2004. 하운섭, 「면양 송순의 현실대응방식과 시적 지향」,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6. 박병익, 「<면양정삼십영>과 자연경물에 대한 미학」, 『고시가연구』 제21집, 한국고시가학회, 2008. 정무룡, 「<면양정가>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54집, 한민족어문학회, 2009.

미학적 관련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자세히 분석한 바와 같이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하지만 그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면양정삼십영>이 먼저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거나 명시적으로는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양정삼십영>이 먼저 창작되었다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그 내용과 표현들을 취하여 송순이 <면양정가>를 창작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정황들이 <면양정가>가 1555년에서 1558년 사이에 창작되었음을 가리키고 있는데 비해 <면양정삼십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인후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1560년 이후에 창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면양정의 주인인 송순이 타인에게 부탁하여 받은 시문들을 바탕으로 하여 <면양정가>를 지었다기보다는 주인인 송순이 먼저 <면양정가>를 짓고 이를 근거로 여러 문인들에게 관련 시문을 부탁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이와 관련하여 위 소세양의 <면양정기>에는 <면양정삼십영>에 등장하는 소재와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특히 “석불사(石佛寺)가 있어 종소리와 경쇠소리가 정자 위로 떨어지는”, “외로운 봉우리가 특출하여 구름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치솟은 것은 용암산(瓮巖山)”, “두 봉우리가 쌍으로 뻗족하여 마치 말의 귀와 같은 것은 용진산(湧珍山)” 등의 표현은 각각 석불소종(石佛疏鍾), 용암고표(瓮巖孤標), 용진기봉(湧珍奇峯) 등을 그대로 연상시킨다. 소세양의 <면양정기>가 송순이 기록해준 것을 거의 그대로 모아서 순서만 조정한 것임을 감안할 때, 송순은 <면양정삼십영>을 짓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면양정 삼십경(三十景)에 대한 명명은 본인이 직접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면양정 창축 시기에 그가 보였던 태도와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자세하게 검토한 데서 드러나듯 면양정 창축 이후 그는 여러 시들을 지었고 또 여러 문인들에게 부탁하여 면양정 소재 시들을 받았다. 그런데 이 시기 그가 스스로 면양정 창축을 기념하여 가장 먼저 지은 것은 <면양정>이라는 제목의 한시와 <십년을 경영하여~>로 시작하

는 시조 등 딱 두 편이다. 이 두 편의 작품을 마련한 그는 이후 여러 문인들에게 작품을 부탁하여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지은 시에 차운한 시를 스스로 짓기도 하였다. 이런 창축 시기의 예에 비추어 볼 때 1552년 면양정 중첩 이후 그가 구상한 것은 한시와 국문시가라는 기본틀을 이으면서도 약간의 변형을 추구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이 바로 가사 <면양정가>와 삼언시 <면양정가>로 나타났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긴 것은 선산부사를 마치고 돌아온 1555년 무렵부터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지금까지 송순의 면양정 구축 과정과 그 과정에서 산출된 시문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면양정가> 창작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송순은 1524년에 면양정 터를 구입하였고, 1533년에 초정 형태의 면양정을 창축하였으며, 1552년에 유배지에서 풀려나 잠시 담양에 머물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면양정을 중첩하였다. 이런 사실은 기존에도 이미 밝혀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면양정 중첩과 관련하여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잡기도 하였다. 즉 면양정 중첩은 기존에 알려진 대로 선산부사로 있던 송순이 잠시 휴가를 얻어 온 사이에 담양부사 오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유배에서 풀려나 담양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면양정 창축과 중첩을 계기로 창작된 관련 시문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기존에 밝히지 못했던 여러 작품들의 창작 시기를 새롭게 밝혔다. 이 과정에서도 연보의 기록과 이를 그대로 신뢰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면양정가> 삼언에 대한 검토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면양정 창축 시기에 탄생한 작품들과 면양정 중첩 이후에 탄생한 작품들 사이에는 일정한 변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면양정 창축 이후 그는 <면양정>이라는 한시와 <십년을 경영하여~>라는 시조를 창작하였다. 이에 비해 면양정 중첩 이후에는 가사 <면양정가>를 짓고 이 작품의 핵심 지향을 압축한 동명의 삼언시를 지었다. 이런 차이는 타인에게 글을 부탁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면양정 창축 이후에는 단형의 한시를 주로 부탁하였으나 면양정 중첩 이후에는 장형의 <면양정삼십영>과 산문인 <면양정기>를 부탁하였다. 이런 사실은 면양정 구축 과정에서 시문을 짓고 부탁한 것이 그저 아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고 송순이 나름대로 구상하고 기획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준다.

이상에서 정리한 일련의 과정과 의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송순이 <면양정가>를 창작한 시기는 선산부사를 마치고 담양으로 돌아온 1555년(63세)부터 전주부윤으로 다시 출사하게 되는 1558년(66세) 사이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맹자』. 『순자』.
- 『국역 고봉집』 2, 민족문화추진회, 1998.
- 『잡가』, 단국대학교 도서관 소장.
- 『한국문집총간 해제』 2, 민족문화추진회, 1998.
-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서울시시스템주식회사, 2001.
- 기대승, 『고봉집』, 『한국문집총간』 40, 민족문화추진회, 1989, 81쪽, 90쪽.
- 김동욱, 「임란전후 가사연구-특히 <면양정가>에 대하여-」, 『진단학보』 25~27 합병호, 진단학회, 1964.
- 김사엽, 『이조시대의 가요연구』, 대양출판사, 1956.
- 김성기, 『면양 송순 시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1998.
- 김성기, 「송순의 시가문학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논문, 1990.
- 김신중, 「송순 시조의 전승 양상과 문학사적 의미」, 『고시가연구』 제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7.
- 김창원, 「강호시가의 미학적 탐구-송순에서 신희까지」, 보고서, 2004, 19~43쪽.
- 김천택, 『청구영언』, 조선진서간행회, 1948.
- 김학성, 「송순 시가의 시학적 특성」, 『고시가연구』 제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7.
- 박병익, 「<면양정삼십영>과 자연경물에 대한 미학」, 『고시가연구』 제2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 박연호, 「면양정 원림과 <면양정가>-공간의 성격과 문화교육적 의미를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제22집, 개신어문학회, 2004.
-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조선전기시단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출

- 관부, 1998, 231~292쪽.
- 소세양, 『양곡선생집』, 『한국문집총간』 23, 민족문화추진회, 1988, 312쪽, 499쪽.
- 송순, 『면양집』, 『한국문집총간』 26, 민족문화추진회, 1988.
- 신광한, 『기재별집』, 『한국문집총간』 22, 민족문화추진회, 1988, 461쪽.
- 신영명, 「16세기 강호시조의 연구-정치적·철학적 성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90.
- 엄훈, 『십성당집』, 『한국문집총간』 32, 민족문화추진회, 1989, 535쪽.
- 우응순, 「16세기 기호사림과의 형성과 그 문학적 지향」, 『한국한문학연구』 제31집, 한국한문학회, 2003.
- 이상보, 『한국가사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74.
- 이종건, 「송순의 시가론」,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1979.
- 이종목, 『조선의 문화공간』 2권, 휴머니스트, 2006, 38~59쪽.
- 임준성 율김, 『면양정삼십영』, 담양문화원, 2009.
- 임형택, 「16세기 광나주 지역의 사림층과 송순의 시세계-계산품류의 발전」,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 비평사, 2002, 144~171쪽.
- 정무룡, 「〈면양정가〉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54집, 한민족어문학회, 2009.
- 정무룡, 「〈면양정삼십영〉 일고」, 『한국시가연구』 제27집, 한국시가학회, 2009.
- 정익섭, 「면양정가단의 형성과 시가활동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55~57합집, 국어국문학회, 1972.
- 정재호, 「〈면양정가〉의 국문학사상 위치」, 『고시가연구』 제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7.
- 조윤제, 『조선시가사상』, 동광당서점, 1937.
- 조태성, 「면과 양, 두 개의 시선-〈면양정가〉의 감성적 독해」, 『고시가

- 연구』 제2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2.
- 최상은, 「송순의 꿈과 <면양정가>의 흥취」, 『고시가연구』 제3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3.
- 최재남, 「송순 연구의 과제와 전망」, 『고시가연구』 제1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7.
- 최한선, 「면양정 송순의 한시」, 『고시가연구』 제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7.
- 하운섭, 「면양 송순의 현실대응방식과 시적 지향」,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6.

<Abstract>

A Study on the Foundation of Myeonangjeong and the Creation Time of Myeonangjeongga by Song Sun

Lee, Sang-won

This study examined the building process of Myeonangjeong by Song Sun and the works of poetry and prose created in the process and estimated the creation time of Myeonangjeongga based on the results.

Song Sun purchased a lot for Myeonangjeong in 1524(at the age of 32), founded it in 1533(at the age of 41), and reconstructed it in 1552(at the age of 60). In that process, he created many works of poetry and prose and asked others to create works, as well. Those works can be divided according to the foundation and reconstruction periods. After founding it, he created a Chinese poem titled Myeonangjeong and a Shijo titled I Worked For Ten Years~. He also asked many different literary figures including So Se-yang to create works on Myeonangjeong, received many Chinese poems about it from them, and created his own poems by borrowing rhymes from those works. After its reconstruction, he created a Gasa titled Myeonangjeongga and a Sameonshi titled Myeonangjeongga that compressed the core orientations of the Gasa. He also asked Gi Dae-seung, Kim In-hu, and others to create works on it and received Myeonangjeonggi and Myeonangjeongsamshipyeong from them. In his latter days, he asked the same favor of Im Je and received

Myeongjeongbu from him. There were clear differences in the works of poetry and prose created after its foundation and reconstruction, which means that it was the product of his conception and planning.

The study closely reviewed the construction process of Myeongjeong and the works of poetry and prose created in the process and found that he created Myeongjeongga between 1555(at the age of 63) when he returned to Damyang after his service as Seonsanbusa and 1558(at the age of 66) when he went into government service as Jeonjubuyun again.

Key words : Gi Dae-seung, Im Je, Kim In-hu, Myeongjeong, Myeongjeongbu, Myeongjeongga, Myeongjeonggi, Myeongjeongsamshipyeong, Song Sun

투고일 : 2015년 1월 15일, 심사 : 1월 19일~2월 12일, 게재확정 : 2월 12일

